Read at Home First Experiences : Pet Rabbits

Storybook?

–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Pet Rabbits(애완동물 토끼)

p4. 키퍼는 안나랑 놀러 나갔어요. 안나의 오빠이름은 알이었어요. 그는 티나와 테스라고 불리우는 토끼 두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테스는 좀 뚱뚱하네," 키퍼가 말했어요.

p5. 알은 키퍼가 테스를 한번 쓰다듬을수 있게 했어요. 그 토끼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토끼의 코는 위로갔다 아래로갔다 하였지요. "이 토끼는 널 좋아하나봐." 안나가 말했어요.

p6. "토끼들은 우스워," 알이 말했어요. "그러나 우린 휴가를 떠나지 못해. 토끼를 봐줄사람이 없거든." "우리가 할수있어" 키퍼가 말했어요.

p7. 엄마가 키퍼르르 집에 데려갈려고 왔습니다. "내가 안나와 알에게 토끼를 대신 돌보아 준다고 말했어요." 키퍼가 말했어요. "그레서 이젠 그들은 휴가를 떠날수 있게 되었어요."

p8. "음" 엄마가 말했어요. "나한테 먼저 물어봤었어야지. 그리고 너가 토끼들을 돌봐야 하잖니." "네, 제가 돌볼꺼예요," 키퍼가 말했엉료.

p9. 일주일후에, 안나와 알이 티나와 테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나의 아빠는 우리를 비롯항 토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지요.

p10. 키퍼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토끼들을 어떻게 돌보아야할지 몰랐거든요. 키퍼는 비프와 칩을 바라보았어요. "날 도와 줄거지?" 그가 물었어요.

p11. 안나의 아빠가 우리를 옮겼어요. "저건 정말 멋진 곳인데." 그가 말했어요. "햇빛을 가려주는거야."

p12. "이 쟁반은 저 우리안에 들어가는거야." 알이 말했어요. "신문지를 널고 그 위에 잡초를 놓아둬. 토끼들이 잠을 자는 곳이거든,"

p13. "종이는 금방 젖을 꺼야, 그러니 매일 갈아주어야 해," 안나가 말했어요. "우!" 비프가 말했어요. "일이 많구나! 키퍼가 할수있겠지뭐."

p14. "토끼들은 건초를 제일 좋아해." 안나가 말했어요. "그러나 당근과 배춧잎도 좋아한단다. 그리고 마실물을 충분히 주어야해."

p15. 플로피가 안에서 짓고 있었고 아빠는 문을 열어버렸답니다. 플로피가 뛰쳐 나왔고 토끼를 향해 짖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잠깐 잊었어."

p16. 다음날, 키퍼가 토끼를 보러 갔을때 티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와이어 밑으로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키퍼는 티나가 나무옆에 있는것을 보았지요.

p17. "도망가지마," 키퍼가 말했어요. 그는 티나에게로 천천히가서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갑자기, 플로피가 다시 뛰어 왔어요.

p18. 비프와 칩이 플로피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불렀고 아빠는 키퍼를 도우러 갔죠. "잘했어!" 아빠가 말했어요.

p19. "음!" 아빠가 말했어요. "이런일은 또 일어날거야.
" "토끼를 돌보는것은 어려운일이야," 키퍼가 말했어요.

p20. 토끼들은 더 많은 건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비프, 칩, 그리고 키퍼를 데리고 애완가게로 왔어요. "이 앵무새를 봐." 칩이 말했어요.

p21. "토끼를 밖에 놔두나요?" 남자가 물었어요. "오늘 밤 불꽃놀이를 할거예요. 토끼들이 분명히 놀랠거예요."

p22. 키퍼는 불꽃놀이가 걱정되었고 그래서 아빠는 토끼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키퍼는 토끼들에게 여분의 담요를 주었습니다.

p23. 붐!뱅! 불꽃놀이가 시작 되었습니다. "불쌍한 토끼들!" 키퍼가 말했어요.

p24. 안나와 알이 긴 휴가끝에 토끼들을 데리러 왔어요. "고마워" 안나의 아빠가 말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에있지?"

p25. "놀랄일이 있거든요," 키퍼가 말했어요. "테스가 그냥 뚱뚱했던게 아니예요. 6마리의 새끼를 낳았거든요!" "믿을수 없어!" 알이 말했어요.

p26, "새끼들이 좀 커지면 너 한마리 가질래?" 안나가 물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ㅋ티퍼가 말했지요. "토끼를 돌보는 일은 힘든일이야."

Talk about the story

–왜 키퍼는 토끼들을 돌보겠다고 했지?

–토끼들은 어떤것을 가장 먹기 좋아하지?

–키퍼가 토끼를 돌볼때 어떤 느낌이었지?

–네가 기르고 싶은 동물들에 관하여 말해보자.